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열두 달 기준으로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맘때가 되면 대부분 한 해를 정리하거나 마무리한다. 개인은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살펴보고, 조직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를 살필 것이다. 조직도 그 성격에 따라 수익을 따져 평가하거나 성과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이때 수익은 수입과 지출 항목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 자료가 추출된다는 점에서 나름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된다. 하지만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일을 많이 한 사람과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

무엇을 남길 것인가

람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인가. 이러한 기준은 조직이나 기관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 특히 수익을 주로 창출하지 않는 곳에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 조직 운영과 사업 방식 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 공공의 문화 행사나 프로그램은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국노래자랑'과 같은 행사를 떠올리면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 결론은 유명 연예인을 불러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지금도 지역 축제에 연예인이 빠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주민 참여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행사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활동이 지역의 문화 예술 영역에서 중요한 성과로 측정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실제로 정책 차원에서

문화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과거 '행사'나 '프로그램' 중심에서 '일상' 혹은 '활동'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광역단체의 문화 정책이 생활 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처럼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문화 예술을 창조하거나 생산하는 주제로 드러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것은 다양한 주민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일종의 플랫폼 조성이자. 공공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한다. 문제는 주민들이 이용할 때 이러한 플랫폼이 불편하거나 여러 제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규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주민들이 직접 공간을 운영하거나 기획하는 자산화 단계가 될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단순히 관람객이나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생활 예술인, 동네 예술가, 마을 활동가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적어도 지역의 문화 예술 영역에서 '성과'로 경쟁해야 할 것은 사람과 경험이

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닿아 있으며 같이 움직인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했는가 하는 것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사람을 남기지 못하고, 그 사람의 경험을 남기지 못한다면, 그 지역의 문화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공간을 바꾸는 것은 몇 년 만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도시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쌓여야 한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이윤주 작가의 '나를 건디는 시간'(행성B, 2019)을 읽다가 오랜만에 만난 구절이다. "단 하루의 무상한 삶을 영위하는 하루살이들의 눈에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지겹게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한심한 존재로 보일 것이다. 한편 별들의 눈에 비친 인간의 삶은 어떤 것일까? 아주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지극히 단단한 규산염과 철로 만들어진 작은 공 모양의 땅덩어리에서 10억분의 1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매우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것이다."(칼 세이건, '코스모스')

종교칼럼

평수, 우리 마음의 자화상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평수가 외교부까지 접수했다는 기사에서 처음으로 평수를 접하였다. 그 뒤로 갑자기 평수가 여기저기서 출몰하기 시작했다. MBC, SBS, JTBC 같은 곳에도 출연했다. 유명세가 대단한 정도를 넘어 어마어마하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평수에게 열광하는지 궁금해서 평수 관련 동영상들을 찾아보았다. 여러 동영상들 보던 중에 모 방송국 피디의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왜 평수를 좋아하는지 여기저기서 진지하게 분석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냥 좋은겁니다. 그뿐입니다"라며 그 피디는 몹시 평수스러운 어투로 평수 열풍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글쎄, 과연 그냥 좋은 게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 하나의 현상이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지금도 상명하복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다. 그렇다고 민주적인 질서 하에서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도 아니다. 봉건적 권위가 사회를 주도하지도 않지만, 배려와 존중으로 서로를 감싸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보편화되기도 않았다. 각자의 주장과 요구는 강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제각각의 목소리만 강하다. 제각각인 목소리는 기존의 권위를 해체시킬 정도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사회일수록 발언권을 향한 욕망은 강해가 마련이다.

평수는 거침없고 당당하다.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친다. 권위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평수의 주장은 항상 단순 명쾌하다. 과거 한때 해외 뉴스나 할리우드 영화와 존중으로 미국의 문화를 접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미국 사람들이 차별 거 아닌 걸로 소송을 걸고 또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걸 보며 참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우리들이 미국을 따리고 있다. 이제는 우리 역시 일상적인 갈등과 대립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 평수는 일상적인 갈등과 온갖 억지 주장 그리고 본질을 가리는 궤변에 환멸감을 느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평

뚫어준다. 근본적으로 사회생활에 주눅이 든 우리들은 항상 타인을 의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수의 모습에 환호하며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대리 분출한다.

왜 평수는 선배, 사장 같은 일상적 권위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Person'은 그리스어로 가면을 뜻하는 'persona'에서 비롯되었다. 어쩔 수 없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은 가면으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자신과는 다른 모습을 타인에게 연출한다. 가면은 단지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데 불과하지만 인형은 자신의 정체를 완전하게 숨길 수 있다. 평수는 가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형 속에 숨어 있다. 그래서 매사에 눈치 볼 일 없다.

평수의 성격적 특징은 한마디로 '어른이'이다. '어른이'는 가면을 쓰고 사회의 각종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하는 어른이지만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평수는 우리 안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낸 캐릭터이다. '어른이'같은 평수의 모습은 어린이나 장년층 보다 청년층에게 더 강하게 어필한다.

그러나 평수의 솔직담백하고 단순명쾌한 주장은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게 한다. 갈등과 대립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가려면 대화의 원칙과 윤리, 규범과 기술

이 필요하다. 궤변이나 억지 주장도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지만 평수식으로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당장 평수를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평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습인지는 좀 더 고민해 볼 일이다.

평수의 또 다른 특징은 표정 없음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지극히 사회적 이어서 얼굴의 표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인간의 표정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평수는 무표정이다. 눈썹도 없기 때문에 표정 정함이 더욱더 두드러진다. SNS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표정이 필요없다. 평수의 표정 없음은 SNS와 인터넷에 둘러쌓여 성장한 세대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대들에게 무표정한 얼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래저래 평수는 청년층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나 같은 기성세대는 뉴스를 통해서 평수를 접했을 확률이 아주 높다.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 될지 아니면 뽀로로처럼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평수 역시 지금 이 시대의 자화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들의 얼굴, 아니 마음을 그린 자화상이다.

기고

맥쿼리, 이젠 결단만 남았다



최희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단독 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모녀가 극단의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6년이 다 되어간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허점들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한편으로 개선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을 마감하는 현재는 어떨까? 성북 내 모녀, 양주 일가족, 인천 일가족 등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1년이면 스무 가족 이상이라고 한다. 이들의 죽음은 과연 자살일까?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들을 그런 선택을 하도록 밀어 넣지는 않았을까?

처음부터 너무 무거웠다. 필자가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돈'이란 것이다. 과연 우리 사회에 '사람을 살릴 돈이 없느냐'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

게 던져 본 것이다. 사람들은 편하게 복지 국가를 추구하지만 포퓰리즘을 견제해야 한다고 한다. 포퓰리즘을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면서까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책이라고 규정한다면, '국가 재정을 쓰지 않고도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국가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벌어진 법인세와 관련한 광주시의 잘못이나 맥쿼리를 닦하는 것도 이젠 허무하게 느껴져 버린다. 너무 영계 있는 매듭은 끊어 내야 하는 것임은 단지 선조들의 지혜일 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지혜일 수 있다. 필자는 매듭을 끊어 내듯 맥쿼리를 끊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공의 처분이다. 공의 처분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 제2순환도로 제1구간만 살펴보면 맥쿼리가 인수했던 2003년 이후만 지난 해까지 재정 지원금은 2800억 원이 훌쩍 넘는다. 2004년 이후 3-1구간은 약 800억 원이다. 여기에는 맥쿼리가 투자한 원금을 갚은 금액은 없고 순수하게 재

정 지원만 한 규모다. 필자가 제2순환도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공의 처분을 주장하다 보니, 많은 이들이 그 명분을 묻곤 한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시민의 안전을 불모로 하는 도로 시설 관리에 무면허 시설 관리 업체 선정이나 수사 중이지만 그 선정 과정 속에서의 상납 구조, 재협약 시 문제 되는 시공무원과의 관계, 맥쿼리에게 유리한 변경 협약, 광주시의 관리 미흡 등을 더 이상 논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시 재정을 건설히 하고 그 재정으로 복지 사각 지대를 좀 더 내실 있게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문제가 된 환급 세액 118억 원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복지 사각 지대의 한 축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광주시민을 살릴 수 있는 돈, 이 보다 더한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공의 처분으로 맥쿼리를 내보내면 그 재정은 어디서 충당하느냐는 질문 또한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상당한 부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무위험에 수익률 9.8%라는 것은 어떠한 금융 상품보다 매력적인 수확에 없다. 천문학적인 돈을 모으는데 그리

어렵진 않을 거란 판단이 드는 부분이다. 법이 미진하다면 법을 바꾸면 된다. 즉 정치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란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번 상상해보자. 제2순환도로 1구간, 3-1구간에 일 년에 쏟아 붓는 돈이 300억 원 가량이다. 이 돈이 광주 시민에게 보편적인 선별적이든 뿌려진다고 생각해보자. 그것도 지역 화폐로. 광주의 장기적 성장에 이 보다 좋은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의 상상은 세금 한 톨 들여가지 않으면서 광주의 장기적 성장 특히,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아가 전국의 공공 재를 다루는 독점 기업에게 똑같은 논리로 다가가면, 대한민국의 내수 경기는 분명 살아날 것이다. 이 상상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완성시켜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 매년 끊임없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 가는 서민들을 생각해보자. 그 돈은 분명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업종은 승수 효과로 여기저기에서 긍정적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중산층도 상위층도 모두 다 사는 방법인 것이다. 경제가 문제라면 정치가 답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社說

광주과학관 놀이터 전략 혈세 낭비 아닌가

광주시 북구 오봉동 첨단지구에 있는 국립광주과학관 운영을 놓고 말들이 많다. 매년 운영비로 200억 원의 혈세를 쓰면서도 영타리 운영으로 인해 과학관이 '동네 놀이터' 수준으로 전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과학관은 2013년 844억 원을 들여 개관한 후 7년째 운영 중이다. 건립 취지는 호남권 과학기술 대중화와 지역 과학 인재 육성이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파행 운영과 기기 고장, 과학과 무관한 공연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주과학관의 경우 올해 운영비는 국비 141억 원과 지방비 44억 원, 자체 수입 15억 원 등 200억 원에 달한다. 전체 운영비의 92.5%가 국비와 지방비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비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낮아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이용객은 광주과학관 홈페이지에 고장 나거나 작동하지 않은 기기들이 많

고 관람객 통제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람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과학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외부 강사가 무단결근하거나 상습 지각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과학과 동떨어진 조잡한 중국 서커스단 공연도 논란을 키웠으며 지난해 중국 기예단 공연도 초종 떨어진 원통이 관람객에게 날아드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광주과학관은 지난해 30일 누적 관람객이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홍보했다. 관람객 증가 속도도 빨라져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되는 데 1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짜임새 없는 운영과 허술한 프로그램 관리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200억 원짜리 동네 놀이터'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생활 속 과학의 대중화를 꾀하고 과학 인재 육성이란 원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보다 철저한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절실하다.

'5·18 왜곡 방지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영상물이 수년째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 민주인권시민연합 등이 5·18 왜곡 언론·방송 및 유튜브를 모니터링한 결과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200건을 적발했다.

이런 영상들은 주로 특정 극우·보수채널에서 제작해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 20건, 2018년 19건이 제작됐으나 올해는 98건이 제작·업로드됐는데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유난히 유튜브에 5·18 왜곡·편향·가짜 뉴스가 급증한 것이다.

이와 함께 5·18 왜곡·편향·가짜 뉴스 영상은 적게는 1000건에서 많게는 100만여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 올려진 왜곡된 콘텐츠는 다시 다른 극우 보수 채널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취지가 일부 극우 인사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네티즌들이 왜곡 영상을 보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작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외국 회사여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삭제·차단 결정이 소용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통위가 올해 5·18 관련 왜곡·편향·가짜 뉴스를 적발해 삭제 및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유튜브에 올려진 110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5·18 왜곡 영상을 제작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일명 '5·18 왜곡 방지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이는 네티즌들이 그릇된 5·18 민주화운동 콘텐츠에 접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사람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앓아 간 질병으로 흉역, 천연두, 결핵, 독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질병은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백신 개발로 예방이 가능해지면서 과거의 공포감은 사라졌다.

그것은 그만큼 노력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태어나서 초 등 6학년 때까지 15개 질환에 대해 36차례 안팎의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 접종이다. 태어나자마자 4주 이내에 결핵과 B형 간염 접종을 시작으로, 한 살 이내에

하면서 발견했다. 이 때문에 백신(vaccine)이란 말은 라틴어로 '암소'의 의미하는 명사 '바카'(vacca)에서 유래했고, 이 용어는 파스퇴르가 예방접종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일반화됐다.

질병의 원인인 병원균을 건강한 사람에게 주사하는 것을 지금은 예방 차원의 조치로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옛날에는 이를 납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제니가 우두의 고름을 이용해 천연두 예방접종에 성공한 당시에도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후 20

백신(vaccine)

세기에 들어 콜레라, 장티푸스, 파상풍, 독감, 천수성 소아마비, 홍역 등의 질병에도 다양한 백신이 개발됐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인데,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 형태가 다르다. 따라서 유행 바이러스 예측이 어려운 탓에 백신을 제때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독감 백신이 부족해 소규모 병의원에서는 예방접종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질병을 예방하는 '접종'이라는 사실쯤은 누구나 알 것이다. 물론 단어 자체에 예방이나 질병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백신은 영국의 제너가 1796년 천연두 예방법을 발명하는 과정에서, 면역 물질을 암소에서 추출해 우두 예방접종 환자를 치료

등을 위해 사용했었고 거기에 관련된 일종은 승수 효과로 여기저기에서 긍정적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중산층도 상위층도 모두 다 사는 방법인 것이다. 경제가 문제라면 정치가 답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